

25.05.07.(수)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 3631 / Fax 02-6788-3629
김현국 국장 010-2581-2487 / 이승환 선임비서관(이용우 의원실) 02-784-7091

국회의원 29명 연명, “한국 NCP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건 공정평가하라” 의견서 제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NCP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건
공정평가 촉구"

2025년 5월 7일 (수) 10: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이하 을지로위)가 한국NCP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사건 공정평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7일 을지로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로위 의원 29인이 연명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은 을지로위 한국옵티칼고용승계 TF단장 이용우의원과 홍기원 의원, 박지혜 의원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최현환 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용우 의원(을지로위 한국옵티칼고용승계TF단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한국 정부의 엄청난 혜택으로 영업이익을 막대하게 창출할 때는 노동자를 가족이라고 하더니 불이 나자,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당내 을지로위원회 소속 TF까지 구성해서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옵티칼은 일절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기원 의원(평택 갑·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도 “저를 포함해 평택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한국 옵티칼의 고용승계를 위해 일본 대사의 관계자를 만나서 협조 요청도 하고 옵티칼 회사 지회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국의 도움을 받은 기업이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지혜 의원(의정부 갑·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 NCP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결자해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은 “니토덴코의 다카사키 히데오 사장이 일본 신년 인터뷰에서 인권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 인권경영이냐”며 “‘먹튀’로 고통당하는 악순환을 멈출 수 있도록 한국 NCP가 대화 주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를 대표해 발언한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되는 불탄 공장 옥상에 올라간 박정혜 동지가 5월 21일이면 고공농성 500일이 된다”며 “500일이 되기 전에 이겨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한국 NCP는 대화를 주선하는 역할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NCP는 OECD 회원국가가 다국적 기업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나라마다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구로, 진정 사건을 평가하여 당사자들에게 해결 방안을 권고한다. 현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 NCP에 옵티칼 해고사건을 진정한 상태다. 이번 을지로위 의견서는 이 진정사건에 대한 을지로위 국회의원 29명*의 의견이 담겼다. 그 내용은 ▲니토덴코의 한국 내 자회사들은 명목상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기업 ▲일본의 니토덴코는 한국 자회사의 고용 등 경영에서 지배력 행사 ▲LG디스플레이의 편광필름 국내 생산 중단은 한국 옵티칼과의 관련성 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등이다.

*이용우·이병진·신영대·박지혜·문금주·김남근·박주민·박홍근·김현정·진성준·민병덕·김문수·이정문·송재봉·박희승·남인순·차지호·이강일·김태선·박민규·이기현·김 윤·염태영·복기왕·권향엽·안태준·이수진·홍기원·김주영 의원(29명)

이들은 의견서에서 이들은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은 고용 및 사업종료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할 때 충분하고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정하고 있다”며 “한국 NCP는 비사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등의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니토덴코는 국내 자회사 니토옵티칼로 생산물량을 이전하고 이후 157명을 신규채용했으며, 영업이익도 작년에만 556억원이나, 7명의 해고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는 거부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를 고용 승계하고 고공농성을 멈추는 것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끝)

참고자료 : 기자회견 사진

첨부 1 : 을지로위 한국NCP 한국옵티칼 사건 공정평가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문

첨부 2 : 을지로위 옵티칼 사건 한국 NCP 제출 의견서



한국 NCP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건 공정평가하라

지난 4월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소현숙 조합원이 건강악화로 476일만에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박정혜 조합원이 농성을 계속하면서 5월 21일이면 고공 농성은 500일이 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이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로 법인 청산을 결정하면서 그 다음해 노동자를 집단해고 했다. 하지만 정작 구미공장의 물량을 니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이전하였다.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7명을 계속해 채용하여 왔다. 고공 농성 이후 채용된 인원만 87명이다. 구미공장 해고노동자 7명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지도 않다. 2023년 440억원, 2024년 566억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50년 토지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 갖은 혜택을 입고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그 대가라 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고용책임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단해고 사건은 한국NCP(한국기업책임경영국내연락사무소)에 제소되어 있다. NCP는 OECD 회원국가가 나라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분쟁해결기구이며, 한국 NCP는 이 사건 1차 평가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한국 NCP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의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 위원회 의원들이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 한국닛또덴코는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일본 니토덴코의 사업상 결정과 거래관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

이 사건 제소된 니토덴코는 한국 자회사들의 공정 및 물량 배분을 계획하여 생산량, 인원 채용, 해고, 매출, 수익 등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즉 일본 니토덴코 이 집단해고 사건에 있어 당연히 당사자 적격이 있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고용 및 사업종료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할 때 충분하고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마련” 하도록 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은 한국NCP가 국제기준과 인권의 가치에 충실하여 일본 니토덴코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조사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OECD 가이드라인은 회원국의 법을 저촉하지 않는 한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들은 한국 NCP는 니토덴코의 한국 법 준수 여부에 간하지 않고 ‘비사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역할에 나설 것도 주문한다.

해고노동자 박정혜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족과 동료들과 만나고, 외투기업 니토덴코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유평티칼 사건 공정평가 촉구

한국NCP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의견서

○ 진정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 피진정인

1. 니토덴코(Nitto Denko Corporation)
2. 엘지 디스플레이주식회사(LG Display Co., Ltd.)

○ 제출자

국회의원 이용우·이병진·신영대·박지혜·문금주·김남근·박주민·박홍근·김현정·진성준·민병덕·김문수·이정문·송재봉·박희승·남인순·차지호·이강일·김태선·박민규·이기현·김 윤·염태영·북기왕·권향엽·안태준·이수진·홍기원·김주영(29명)

1. 의견서 제출의 이유

일본의 다국적기업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지분 100%를 갖고 경영하던 중 2022년 화재를 이유로 회사를 일방 청산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고용과 관련해 대화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옵티칼 2명의 여성노동자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한지 500여일이 되어 갑니다. 글로벌기업은 인권경영을 내세우며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표방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건은 현재 OECD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한국 NCP의 1차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우리는 한국 NCP의 공정한 평가로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제고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 니토덴코의 한국 내 자회사들은 명목상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니토옵티칼, 한국닛또덴코)은 형식상 분리된 법인일 뿐 사실상 하나로 통합된 기업입니다. 한국 자회사 사이에서 생산인력은 재배치 또는 파견되어 니토덴코의 편광필름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종사하였습니다. 한국옵티칼, 니토옵티칼의 설비도 자회간에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옵티칼, 니토옵티칼의 영업조직은 2019년 이후 모두 한국닛또덴코로 통합되어, 니토덴코의 사업상 결정과 거래관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3. 일본의 니토덴코는 한국 자회사의 고용 등 경영에서 지배력 행사

일본의 니토덴코는 자신의 한국 자회사들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회사들은 일본 니토덴코에 의해 공정 및 물량 배분 계획에 의해 생산량, 인원 채용, 해고, 매출, 수익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청산 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의 한국 내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니토덴코의 글로벌공급망에서 백업(Back-up)역할을 하였습니다.

니토덴코의 경영상 방침에 따라 한국옵티칼에서 후공정을 마친 편광필름이 LG디스플레이에 공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니토덴코의 중국 상하이공장의 조업이 중단됐을 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후공정 물량이 늘어난 것도,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 화재로 니토옵티칼에서 대체생산이 이루어진 것도 모두 일본 니토덴코의 결정과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LG디스플레이가 한국 NCP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1) 글로벌공급망에서 편광필름의 최종

고객인 Apple, 중간 고객인 LG디스플레이는 일본 니토덴코가 운영하는 다수의 글로벌 공급거점으로부터 편광필름을 공급받았고, 2) 다수의 공급거점의 물량과 생산은 모두 니토덴코가 결정했다는 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LG디스플레이의 편광필름 국내 생산 중단은 한국 옵티칼과의 관련성 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음

LG디스플레이가 한국 내에서 편광필름 생산을 중단하여 기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2021년도 회계연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매출을 보면 약 70%(전체 매출 3,987억원 중 약 2,827억원)가 중국 상하이 니토옵티칼을 포함한 니토덴코의 중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즉 기존 매출 70%는 LG디스플레이의 국내법인이 아닌 중국법인에 납품을 목적으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제품을 중간재 형태로 니토덴코의 중국 자회사로 이전시켜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LG디스플레이의 중국 사업 의존 비율이 70%였다는 것으로 한국 사업의 종료 여부는 관련성 부인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5. 결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일본 니토덴코와 한국 LG디스플레이의 사업상 결정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들의 고용에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토덴코 국내 자회사들의 운영 형태와 국제적 매출 현황을 보자면, 니토덴코 측의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청산과 해고가 불가피하고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은 ‘고용 및 사업종료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할 때 충분하고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는 회원국의 법·규정이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다국적기업들이 회

원국의 법을 저촉하지 않는 한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NCP는 니토덴코의 한국 법 준수 여부에 간하지 않고 ‘비사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등의 역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회의원들은 한국NCP가 국제기준과 인권의 가치에 충실하여 일본 니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조사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5월 7일

제출자 국회의원 이용우·이병진·신영대·박지혜·문금주·김남근·박주민·박홍근·김현정·진성준·민병덕·김문수·이정문·송재봉·박희승·남인순·차지호·이강일·김태선·박민규·이기현·김 윤·염태영·복기왕·권향엽·안태준·이수진·홍기원·김주영(29명)

한국 기업책임경영국내연락사무소(NCP) 귀중